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큰 인기'

농어촌공 전복, 은퇴 농업인 농지 매입해 청년창업농·2030세대에 우선 임대... 효율화 도모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13일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청년창업농, 2030세대, 전입농, 귀농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0년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시작하여 2018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변경하고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하여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청년창업형 후계 농업인(이하 청년창업농) 선발에 맞춰(전국 1,600명, 전북 270명 선발) 전년도 대비 187억원 증가된 49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지매입에 나섰다. 지난 10일까지 전북지역의 136명의 고령·은퇴예정 농업인으로부터 225필지, 63ha의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한 농지가 논일 경우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

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들에게 타작물배배 조건으로 우선 임대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5년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도 가능해 영농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에 문의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文정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향후 성과 본격화

연구개발예산 올해 첫 20조 돌파 가계통신비 연간 1.8조 추가경감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성과에 대해 인공지능(AI) 기업 수가 60% 가까이 증가하고 AI 연구개발(R&D) 예산이 2배로 증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고 가계통신비를 연간 1조8000억원가량 추가로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2017년 11월 수립했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했고 관련 전력인 5G+ 전략을 지난달 세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됐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5843억원으로 1년새 29% 성장했다.

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 예정)의 핵심 기술인 75t 엔진 기술을 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했다고 언급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 등도 작년 12월에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고 진단했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의 성과도 제시했다. 과기부는 정부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6조4000억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을 달성했으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수(2017년 5개→2018년 12개)와 벤처캐피탈(VC) 바이오의료분야 투자액(2017년 3788억원→2018년 8417억원)이 증가하는 등 바이오 벤처창업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했다. 또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104.5로 2017년(102.9)에 비해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통신물가지수 100.4에서 99.5로 하락했다고 제시했다.

생활 속 규제 혁파 사례로는 유관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지난해 700호를 돌파한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최근 3년 간 각각 30%, 47% 증가했으며,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이 지난해 8100여건이 기업으로 이전됐고, 실험실 창업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AI 전문기업 수도 작년 43개로 2016년과 견줘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한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AI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2700억원으로 2016년의 1300억원에 비해 107% 확대됐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부는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독자적 우주 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 데 이어 2월에는 수소 생산, 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을 시작했다.

과기부는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역 수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유지류(128.7p)와 설탕(181.7p) 등도 상승했다. 유지류 가격은 팜유·대두유가, 설탕은 원유 가격 상승이 견인했다. 반면 곡물가격은 내렸다. 곡물은 160.1p로 전월대비 2.8%가 하락했는데, 이는 넉달 연속 이어지는 감소세다.

한편 FAO에 따르면 2019~202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27억2220만톤으로 전망됐다. /뉴시스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다시 상승세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인용해 발표한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70.1포인트(P)를 기록,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유제품·유지류·설탕·육류·곡물 등 5개 품목의 국제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

표다. FAO가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당시 161.5p이던 식량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 올해 2월(166.8p)까지 월마다 큰 폭으로 상승해온 바 있다. 3월에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돼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달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군별로 유제품·유지류·육

류·설탕은 상승했고 곡물은 하락했다. 유제품은 215.0p를 기록해 전월보다 5.2% 올랐다. 버터·전지분유·치즈 등이 크게 올랐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우유 생산량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육류의 경우 169.1p로 전월보다 3.0% 상승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쇠고기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생산량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지역 수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유지류(128.7p)와 설탕(181.7p) 등도 상승했다. 유지류 가격은 팜유·대두유가, 설탕은 원유 가격 상승이 견인했다. 반면 곡물가격은 내렸다. 곡물은 160.1p로 전월대비 2.8%가 하락했는데, 이는 넉달 연속 이어지는 감소세다.

한편 FAO에 따르면 2019~202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27억2220만톤으로 전망됐다. /뉴시스

안전시설 정보를 한눈에!

LX, 신규앱 '랜디랑' 안전서비스 대폭 강화
응급상황 시 112·119로 위치좌표 문자 전송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국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새로운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LX는 지난 10일 공간정보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체개발한 국민생활안전 앱 '랜디랑'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랜디랑은 2013년부터 서비스해오던 LX토지일람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 앱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지정된 장소 인근의 CCTV, 경찰서, 응급실, 대피소 등 안전시설 정보를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여성 등의 귀가 시에 앱 사용자가 출발 위치와 이동 수단, 시간 등을 가족, 연인, 친구에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응급상황 시에는 빠르게 사용자의 위도와 경도, 현장사진 그리고 10초간의 현장 녹음파일을 미리 지정해 놓은 번호나 112 또는 119에 문자로도 전송이 가능하다.

랜디랑 앱은 안전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화장실, 문화시설, 도시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뿐 아니라 전국의 LX임직원들이 추천하는 맛집까지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랜디랑'은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의 앱 스토어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랜디랑 등의 단어를 통해 검색하면 손쉽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창학 사장은 "랜디랑은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앱"이라며, "LX는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랜디랑 앱 이용자 중 추천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런칭이벤트를 공사 블로그(blog.lx.co.kr)에서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군산항서 ASF 국내 유입방지 캠페인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3일 농협사료전북지사·농협사료 군산바이오·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임직원과 함께 군산항에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예방 활동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북농협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전단지,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홍보에 주력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인은 ASF 발생국을 방문할 때 돼지농장과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양돈농가는 축사 내의 소독,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



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1건, 캄보디아 7건 등 아시아 4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국내 휴대 축산물에서 5차례 유전자 검출되는 상황이다. /김영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